

여성결혼이민가구의 부의 대물림: 부모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자녀교육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최천근·김복태

부모가 부유하면 그 자녀도 부유하고, 부모가 가난하면 그 자녀도 가난하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문화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집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중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득 및 부모의 학력수준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자녀의 학력 및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주요 이론인 인적자본론과 소득이전이론에 근거하고,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면서 여성결혼이민가구 성년 청소년의 소득과 학력에 미치는 요인을,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소득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단위는 결혼이주여성가구 자녀로서 성년의 청소년(20세 이상 24세 이하)인 598명이다. 분석결과, 여성결혼이민가구 부모의 학력수준은 자녀의 학력 및 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여성결혼이민가구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 가구의 자녀가 미래 우리사회에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가구의 빈곤상태가 그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주제어: 여성결혼이민자, 부의 대물림, 인적자본론, 소득이전 이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1. 서론

부모가 부유하면 그 자녀도 부유하고, 부모가 가난하면 그 자녀도 가난하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부의 대물림’ 또는 ‘빈곤의 대물림’이라고 말한다.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의 부의 대물림은 크게 인적자본론(Becker, 1964, 1975; Becker &

Murphy, 1988)과 소득이전이론(Becker, 1974; Becker & Tomes, 1979)에 근거하여 설명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Becker & Murphy, 1988).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결국,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집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의 '부의 대물림'에 대한 연구는 시급하다. 특히, 저출산 현상으로 유소년인구가 급감하는 반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국내 전체 아동 중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9년 기준,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 학생수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나(여성가족부, 2020), 2050년에는 보육유아교육기 아동 중 24.7%, 초등학교 아동 중 15.3%, 중학교 아동 중 12.0%, 고등학교 아동 중 10.1%가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삼식·최효진·박성재, 2009). 결국, 다문화 자녀는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 자녀에 대한 소득이전의 맥락은 부의 대물림 보다는 빈곤의 대물림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득이전 이론에 입각하여, 다문화가정은 저학력, 무직 혹은 질 낮고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직업, 저소득 등의 특성이 다문화가족에 집중되는 계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Becker, 1974; Becker & Tomes, 1979).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업, 빈곤, 저학력이 부모에게서 자녀로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적절하지 못한 보육환경, 교육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을 겪으면서 더욱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을 확대할 경우, 과연 다문화 자녀 또한 긍정적인 소득이전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별 다문화 가정이 내국인들과 같이 질 좋은 교육과 소득의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득이전이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자연스러운 소득이전 보다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론과 소득이전 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중 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득 및 부모의 학력수준이 결혼이민자 가구 자녀의 학력 및 소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부의 대물림 관련 이론으로 인적자본이론, 소득이전 이론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과정을 분석할 모형과 자료를 제시하고 4장에서는 모형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의 대물림 이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먼저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Becker(1964; 1974)의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과 Stiglitz(1975)의 선별가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이란 인간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몸속에 축적시킨 지식·기술·창의력 등은 마치 기계가 가진 생산력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물질 자본인 기계가 가진 생산력과 비슷하게 인간의 몸에 갖추어진 생산력이 있다는 이론으로 교육을 통해서 축적된 생산력은 결국 노동소득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인적자본의 개념은 교육의 투자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이나림·정홍열, 2017). 우리 사회에서 인적자본이론이 성립하려면 대졸과 고졸간의 큰 임금 격차와 큰 폭의 승진기회의 차별도 생산성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이 아닌 직업훈련기관에만 가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선별가설이 설명해주고 있다. 선별가설은 대학이 단순히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곳이라기 보다는 대학교육이 능력있는 사람과 능력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Stiglitz, 1975; 정영숙, 1996). 즉,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용주는 관련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은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대학을 인적자본보다 선별장치로서의 기능을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정영숙, 1996). 이에 따라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안종범·전승훈, 2008).

결국, 인적자본론과 선별가설에 따르면, 교육수준의 격차는 소득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수준, 즉 교육 수준과 기타 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인적자본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투자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 높은 임금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Mincer, 1974).

이러한 논의는 부모세대의 소득이 자녀세대로 대물림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소득 이전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요약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그대로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굳어진 그들의 소득수준이 다시 그들의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의 교육격차와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에게로 세대를 넘어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이 가족 간의 불평등한 소득 상태를 완화시켜주는 소득 균등화 기제로 작용한다고 본다(Becker, 1964). 또한 이전소득 제공자의 효용함수는 자신의 소비를 통한 효용과 다른 가족 구성원의 효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Becker, 1991). 따라서 이전소득을 제공하는 부모는 부모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소비를 통한 효용과 더불어 자녀의 효용에도 관심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소비를 통한 효용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전소득 제공자는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소득을 이전하게 될 것이다(Becker, 1991). 즉, 이전소득을 수혜한 가족 구성원이 이전받은 소득으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의 증가는 이전소득 제공자의 효용 또한 증가시켜 이전소득 제공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손병돈, 1998).

이상 부의 대물림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인적자본이론과 소득이전이론으로 고찰하였다. 인적자본론과 소득이전이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의 대물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다문화가족의 교육격차와 소득격차의 세대간 이전, 부의 대물림 논의는 있었지만(이삼식·최효진·박성재, 2009; 김이선 외, 2020),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교육격차와 소득격차의 세대간 이전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인 여성결혼이민가구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여 형성한 가족으로 그 자녀까지 포함하여 세부적인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가구의 교육격차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다문화정책 방향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학력과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모교육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부모소득이 갖는 매개적 역할이 있다고 가정한다. 부모교육은 부모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국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직업, 나아가 소득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다(최필선·민인식, 2015a:2015b; 최은영·홍장표, 2014; 최은영, 2012; 여유진, 2008).

한국교육고용패널 제1차부터 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 및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자녀의 소득수준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최필선·민인식, 2015a).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계층 이동성을 분석하고 수학능력시험점수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수능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낸 연구도 있다(김성태·전영준·임병인, 2013).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자녀의 수능점수도 높게 나타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부모가 고학력이고 자녀가 남성인 경우 자녀의 계층에 있어서 상향적 이동이 어려워진다고 보고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부모가 제공하는 풍족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김성태·전영준·임병인, 2013).

최은영(2012)도 KLIPS자료를 활용하여 최필선·민인식(2015a)의 연구와 비슷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학력 및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을 국제비교한 연구에서도, 고학력 가정에서 자란 경우, 다른 개인적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저학력 가정에서 자란 개인보다 소득이 높게 나타나, 부모교육과 자녀소득 간의 연계성을 보여준다(Causa & Johansson, 2010).

남기곤(2008)은 세대 간 계층이전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유럽의 12개 국가와 국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학력수준을 높인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남기곤, 200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사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자본과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어떠한 매개로 작용하는지 분석한 연구에서도, 그 결과 부모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교육비 지출수준을 높이거나 부모자녀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사교육비 지출수준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07). 이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생활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자녀의 학업성취도, 즉 교육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였다.

이삼식·최효진·박성재(2009)도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낮은 학력수준과 직업능력과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빈곤이 지속되고, 이런 빈곤이 자녀의 낮은 학력과 낮은 소득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계층화 현상과 맞물려, 사회에 대한 불만족을 갖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사회통합성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3. 부모(가구)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학력과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소득과 그 자녀의 소득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자본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모세대의 소득과 자녀세대의 소득수준을 비교하여 미국 내 지역별로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지역별 소득 이동성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밝혔다(Chetty, Hendern, and Saez, 2014). 미국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득분위 최하위에 속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최상위에 이를 확률은 7.8%에 지나지 않았다(Chetty, Hendern, and Saez, 2014).

상속을 통한 자본이전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5.7% 수준이었던 연간 상속액이 2010년대에는 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낙년, 2015). 개인 부의 축적에 있어 이러한 상속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에는 37%를 차지했고 2000년대에는 42%로 증가함으로써, 상속을 통한 개인의 자본축적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김낙년, 2015)

국제비교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및 사회경제적 배경과 자녀의 교육 및 소득수준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두고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을 비교한 결과, 소득 측면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부모와 자녀의 소득 간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 낮은 계층이동성을 보였다고 밝혔다(Causa

and Johansson, 2010).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을 연구에서는 앞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계층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김희삼, 2009). 예컨대 사교육시장이 과열되면서 자녀의 교육수준이 경제적 자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고, 부모세대가 보유한 경제적 자본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상속을 통한 직접적인 자본 이전의 효과 또한 강력해졌으며, 이에 따라 부모의 소득수준이 세대 간 계층이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졌다고 지적하며 향후 소득이동성의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였다(김희삼, 2009).

Bowles and Gintis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다음 세대의 경제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Bowles and Gintis, 2002). 이들은 부모의 소득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재산, 인종, 그리고 학교 교육을 꼽았다(Bowles and Gintis, 2002).

결혼이민여성은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외국인여성이 한국인남편의 직장 은퇴 후에 자녀 양육·교육을 위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자녀들은 충분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함에 따라 빈곤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삼식·최효진·박성재, 2009).

Picot, Hou and Qiu(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모두 이민자일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결국, 상대적으로 국가별 이민자의 소득수준이 낮아, 자녀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여유가 없으며, 결국에는 인적자본이 부족해진 자녀들의 소득도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모형

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주요 이론인 인적자본론과 소득이전이론에 근거하고,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면서 여성결혼이민가구 성년 청소년의 소득과 학력에 미치는 요인을,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소득으로 구분하였다([그림1] 참조).

첫째,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이 높아진다(가설1). 부모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면, 인적자본론에 따라 교육을 받은 만큼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소득이전이론에 따라 부모가 소득이 높아지면 잉여소득을 자녀에게 지출하게 되고, 자녀가 사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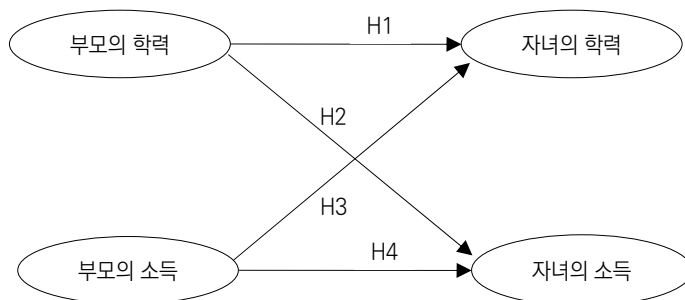
둘째,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소득이 높아진다(가설2).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자녀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면, 인적자본론에 따라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녀는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이 높아진다(가설3). 소득이전이론에 따르면, 부모는 잉여소득이 있으면 자신이 모두 사용하기 보다는 자녀에게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부모의 소득이 높아지면 자녀에게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사교육을 많이 받게 된 자녀는 학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소득이 높아진다(가설4). 가설3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아진다.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자녀의 인적자본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좋은 직장을 갖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 즉, 자녀의 소득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가구 자녀의 학력과 소득에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녀의 학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입학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고, 자녀의 소득은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통제변수: 성별, 연령, 부모혼인상태, 거주지역, 기초생활수급여부

2. 자료원 및 분석단위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117079호)의 원자료를 기관의 승인을 얻어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8년 8월 9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2018년 8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모집단은 통계청 인구총조사(2017.11.1.기준) 자료에 나타난 전국의 다문화가구이고, 혼인귀화자와 기타 귀화자를 무작위 층화추출 방식으로 25,053가구를 표본추출하였고, 이 중에서 17,550가구(표본대비 응답률 70.1%)가 조사에 응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단위는 결혼이주여성가구 자녀로서 성년의 청소년(20세 이상 2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만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료의 범위내에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년이어야 한다는 논리적 한계를 감안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가구 성년 청소년의 학력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2개 집단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결혼이주여성가구 성년 청소년의 학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가구의 청소년 자녀로서 만20세에서 24세에 이르는 598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가구 성년 청소년의 소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598명 중에서 소득이 의미가 있는 취업을 한 성년의 청소년 15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변수측정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여성결혼이민가구 자녀의 학력과 소득이다. 자녀의 학력은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입학한 경험이 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소득은 자녀의 월평균소득이다. 월평균 소득이 성년 청소년의 월평균 소득이 없으면 “0”, 50만원 미만이면 “1”, 50~100만원 미만이면 “2”, 100~150만원 미만이면 “3”, 150~200만원 미만이면 “4”, 200~250만원 미만이면 “5”, 250~300만원 미만이면 “6”, 300만원 이상이면 “7”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여성결혼이민가구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다. 먼저, 부모의 학력은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부의 학력은 여성결혼이민가구의 부가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입학한 경험이 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다. 모의 학력은 여성결혼이민가구의 모가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입학한 경험이 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소득은 부의 소득과 모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부와 모의 소득은 각각 월평균 소득이 없으면 “0”, 50만원 미만이면 “1”, 50~100만원 미만이면 “2”, 100~150만원 미만이면 “3”, 150~200만원 미만이면 “4”, 200~250만원 미만이면 “5”, 250~300만원 미만이면 “6”, 300만원 이상이면 “7”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소득과 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는 기초생활수급여부, 부모의 혼인상태, 자녀의 연령, 자녀의 성, 거주지역, 자녀의 근로상태 등이 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부모의 혼인상태는 부모가 동거하고 있으면 “1”,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 혼자 살고 있으면 “2”,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3”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자녀의 연령은 만20세면 “1”, 만21세면 “2”, 만22세면 “3”, 만23세면 “4”, 만24세면 “5”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성은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으로 측정하였다. 거주지역은 농촌지역이면 “1”, 도시지역이면 “0”으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근로상태는 상용근로자이면 “1”, 임시근로자이면 “2”, 일용근로자이면 “3”,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이면 “4”,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면 “5”, 무급종사자이면 “6”으로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이 연구의 목적이 여성결혼이민가구 성년 청소년의 학력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과 소득의 요인을 분석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만20세에서 25세미만의 성년 청소년의 학력을 분석하기 위해 학력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여, 성년 청소년의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항변수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로짓모형으로 회귀분석하고자 한다.

만20세에서 25세 미만의 성년 청소년의 소득을 분석하기 위해, 성년 청소년의 월평균 소득이 없으면 “0”, 50만원 미만이면 “1”, 50~100만원 미만이면 “2”, 100~150만원 미만이면 “3”, 150~200만원 미만이면 “4”, 200~250만원 미만이면 “5”, 250~300만원 미만이면 “6”, 300만원 이상이면 “7”로 측정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부의 대물림 여부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인구통계학 특성

2018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전체 표본 중에서 조사대상 20세이상 25세미만 성인은 총598명으로 조사되었다(〈표 1〉 참조). 그 중에서 남자는 279명으로 46.66%를 차지하고, 여자는 319명으로 53.34%를 차지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동에 거주하는 자는 326명으로 54.52%를 차지하고, 농촌지역인 읍면에 거주하는 자는 272명으로 45.48%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0세는 173명으로 28.93%를, 만21세는 144명으로 24.08%를, 만22세는 108명으로 18.06%를, 만23세는 90명으로 15.05%를, 만24세는 83명으로 13.88%를 차지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계속 증가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녀의 연령이 낮아질 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만20세이상 25세이하 자녀의 학력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입학 경험이 있는 자는 351명으로 58.70%를 차지하였고, 그렇지 않은 자는 247명으로 41.30%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9학년도 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 전체 진학률 76.5%(교육부, 2019)에 약20%p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여성결혼이민가구 자녀의 대학진학률은 일반인의 대학진학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종속변수는 자녀의 소득이다. 먼저 20세이상 25세미만 자녀 중에서 일을 하였던 경험이 있는 자녀는 187명으로 31.27%이다. 대체로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약351명(41.30%)중에서 일을 하기 위해 취업 또는 창업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일을 한 경험이 있는 187명 중에서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받고 있는 자녀는 157명으로 약83.95%를 차지하였다. 이는 여성결혼이민가구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업이나 창업에 뛰어들었을때, 그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체로 낮은 수준의 직업이나 일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결혼이민가구의 빈곤이 다시 자녀에게로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79	46.66
	여자	319	53.34
거주지역	동	326	54.52
	읍면	272	45.48
연령	만20세	173	28.93
	만21세	144	24.08
	만22세	108	18.06
	만23세	90	15.05
	만24세	83	13.88
자녀의 학력	고졸이하	247	41.30
	전문대학 이상	351	58.70
자녀의 월 소득	임금/보수 없었음	3	1.19
	50만원 미만	14	8.92
	50~100만원 미만	35	22.29
	100~150만원 미만	36	22.93
	150~200만원 미만	69	24.84
	200~250만원 미만	24	15.29
	250~300만원 미만	4	2.55
	300만원 이상	2	1.27
	해당사항 없음	(411)	(73.74)
부모 혼인상태	기혼	546	91.30
	사별	19	3.18
	이혼/별거	33	5.52
기초생활수급대상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	32	5.35
	기초생활수급 대상 아님	566	94.65
부모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5	24.25
	400만원 미만	224	37.46
	600만원 미만	127	30.79
	600만원 이상	102	17.05
부의 학력	고졸 이하	426	71.24
	전문대학 이상	172	28.76
모의 학력	고졸 이하	543	90.80
	전문대학 이상	55	9.20
합계		598	100.0

주요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학력수준을 살펴보자. 부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고등교육을 경험한 아버지는 172명으로 28.76%를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아버지는 426명으로 71.24%를 차지한다. 여성결혼이민가구 아버지의 대학진학률은 28.76%는 2000년 남성의 대학진학률은 63.5%(교육부, 2000)와 비교하였을 때, 약35%p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여성결혼이민가구의 학력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의미하고, 인적자본론적 측면에서 여성결혼이민가구의 인적자본이 취약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고등교육을 경험한 어머니는 55명으로 9.20%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대한민국 여성의 대학진학률 60.3%에 비하면 약50%p나 낮다는 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이 대한민국 여성의 학력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부모의 소득수준을 살펴보자.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가구가 369가구로 전체의 61.71%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여성이주가구의 기초생활수급 여부는 약32가구인 5.35%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로 나타났다. 부모의 혼인상태는 부모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546명으로 91.30%를 차지하고, 사별은 19명으로 3.18%, 이혼별거의 경우 33가구로 5.52%를 차지하였다. 일을 한 경험이 있는 187명의 근로상태는 상용근로자가 56명으로 35.67%, 임시근로자이면 54명으로 34.39%, 일용근로자가 37%로 23.57%를 차지하였다.

2. 여성결혼이민가구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여성결혼이민가구 자녀의 학력을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입학한 경험여부로 조작적 정의한 후,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로짓모형으로 회귀분석하였다. 여성결혼이민가구의 부의 대물림에 대한 영향관계를 회귀분석하기 이전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의 변수들이 모두 등간척도나 비율척도가 아니라 명목척도로 측정되었기에 부득이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로짓모형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표2〉 참조), 대체로 연구모형에서 제시하는 부모의 소득과 부모의 학력이 모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학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유의수준 10%에서 여성결혼이민가구 성년 청소년의 고등교육기관 입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에서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그 자녀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가구 어머니의 학력은 유의수준 5%에서 여성결혼이민가구 성년 청소년의 고등교육기관 입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여성결혼이민 가구에서 어머니가 대학교육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자녀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여성결혼이민가구 성년 청소년 학력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고등교육기관 입학여부 (입학=1, not=0)		
	b	SE	Z
부모의 월평균 소득	.04	.02	1.69 #
모의 학력	.86	.36	2.36 **
부의 학력	.63	.24	2.55 **
성별(남성=1,여성=0)	-.41	.17	-2.36 **
연령(기준=20세)			
만21세	.40	.24	1.65
만22세	-.06	.25	-.26
만23세	-.20	.26	-.77
만24세	.05	.28	.18
부모혼인상태(기준=부모이혼)			
부모있음	1.04	.44	2.32 **
부사망	1.08	.63	1.73
거주지역(농촌=1, 도시=0)	.16	.18	.90
기초생활수급(no=1, yes=0)	-.27	.39	-.70
상수	-.81	.57	-1.42
N	598		
Model x2	42.46***		
Pseudo R2	.05		
Log Likelihood	-384.18		

※ 주: # p<0.10, * p<0.05, ** p<0.01, *** p<0.001

셋째, 여성결혼이민가구 아버지의 학력은 유의수준 5%에서 여성결혼이민가구 성년 청소년의 고등교육기관 입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여성결혼이민가에서 아버지가 대학교육 경험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자녀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여성결혼이민가구 자녀가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보다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과 비교할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가구 부모의 혼인상태는 성년 청소년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가구 부모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는,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 비해, 그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3. 여성결혼이민가구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

여성결혼이민가구 자녀의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조작적 정의한 후,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표3〉 참조), 대체로 연구모형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부모의 소득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의 학력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첫째,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유의수준 5%에서 여성결혼이민가구 성년 청소년의 월평균 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에서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그 자녀의 월평균 소득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가구 자녀가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보다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는 자녀의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는데, 그 자료는 청소년 자녀의 실태조사는 5세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녀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30세 이상의 자녀의 소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 남성의 경우 30세에 이르기 때문이다. 현재의 자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결혼이민

가구 자녀의 사회진출 초기의 월평균 소득만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자녀의 소득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여성결혼이민가구 성년 청소년 소득 결정요인 회귀분석

변수	자녀의 소득		
	b	SE	t
부모의 월평균 소득	.06	.02	2.05 **
모의 학력	-.48	.43	-1.10
부의 학력	-.36	.27	-1.34
성별(남성=1, 여성=0)	.55	.18	2.94 ***
연령(기준=20세)			
만21세	.34	.26	1.29
만22세	.35	.30	1.14
만23세	.00	.27	.02
만24세	.55	.29	1.87
부모혼인상태(기준=부모이혼)			
부모있음	-.45	.42	-1.06
부사망	-.53	.88	-.60
거주지역(농촌=1, 도시=0)	.34	.20	1.70
기초생활수급(no=1, yes=0)	.80	.67	1.28
상수	2.89	.87	-6.50
N	157		
Adj R2	.42***		
Log Likelihood	-384.18		

※ 주: # $p<0.10$, * $p<0.05$, ** $p<0.01$, *** $p<0.001$

통제변수로 근로형태(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시켰으나, 결과보고에는 생략함

V. 결론

본 연구는 인적자본론과 소득이전 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중 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득 및 부모의 학력수준이 결혼이민자 가구 자녀의 학력 및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수준은 자녀의 학력 및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수준은 높아졌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결혼이민여성 본인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자녀의 인적자본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자녀의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인하여 소득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득수준은 자녀의 학력에는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의 소득에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수준도 높아졌으며, 소득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두 가지 분석결과를 통해,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은 결혼이민자 또한 자녀의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결혼이민자 자녀의 인적자본 축적이 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 가구의 자녀가 미래 우리사회에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는, 결혼이민자 지원내용의 변화이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학력과 소득을 향상시키는 접근방법으로 결혼이민자 가구에 지역화폐 및 교육쿠폰을 발행하여 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득향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인적자본 축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직접보상은 내국인 특히 농촌사회를 구성하는 내국인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직접보상보다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교육지원과 취업 지원이 그 실효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전문기술 교육훈련, 검정고시 지원 및 대학교 진학을 위한 기회 부여 등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도 함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낮고 소득이 적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의 확대 측면이다. 여성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본 축적과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능력과 시험성적 향상을 위해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원이 가능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미래사회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에게 4차 산업 및 6차 산업 관련 직업교육 현장을 제공하고, 수료한 이후에 해당 기업에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모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교육과 진로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사회적응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결혼이민가구의 빈곤상태가 그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여성결혼이민가구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그 자녀의 소득과 학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연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만20세이상 25세미만의 성년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25세이상 성년 자녀의 소득과 학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가구의 부의 대물림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낙년(2015).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Working Paper Series WP2015-07. 낙성대 경제연구소.
- 김성태·전영준·임병인(2013). “한국교육고용패널로 본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 분석”.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6(2): 1~28.
- 김은정(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5): 134~162.
- 김이선·최윤정·장희영·김도혜·박신규(2020). 이주 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방안: 사회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희삼(2009).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 KDI정책포럼, 제220호.
- 교육부. (2000). 교육통계연보 2000.
- 교육부. (2019). 교육통계연보 2019.
- 남기곤(2008).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국제비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7(1): 61~92.
- 안종범·전승훈(2008).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재정학연구」, 1(1): 119-142.

- 아니림·정홍렬(2017). “교육훈련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24(2): 49-61.
- 여유진(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2): 53~80.
- 이삼식·최효진·박성재(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병돈(1998). “가족간 소득이전 결정요인의 계층 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11(1): 76-106.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통계.
- 정영숙. (1996).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7(1): 1-14.
- 최은영(2012). “소득계층별 교육과 가구소득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20(3): 23~42.
- 최은영·홍장표(2014). “세대 간 직업계층의 이동성”. 「지역사회연구」, 22(1): 51~70.
- 최필선·민인식(2015a),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31~56.
- 최필선·민인식(2015b). “한국의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연구”. 제10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259~283.
- Becker, G. S. (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Press
- Becker, G. S. (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 1063-1093.
- Becker, G.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 K. M. Murphy. (1988). The Family and the Stat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1(1): 1-18.
- Becker, G. S. & N. Tomes. (1979).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6): 1153-1189.
- Bowles, S. and H. Gintis(2002). The Inheritance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6(3): 3~30.
- Chetty, R., N. Hendren, P. Kline & E. Saez(2014). *Where is the Land of Opportunity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usa, O. & Å. Johansson(2010).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in OECD Countries*. OECD.

Mincer, J. A.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Columbia University Press,

Picot, G., F. Hou & H. Qiu(2016). The Human Capital Model of Selection and Immigrant Economics Outcomes. *International Migration*, 54(7): 73-88.

Stiglitz, J. (1975).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65: 283-400.

최천근(崔天根): 주저자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FSU)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사/조직, 성과평가, 여성정책, 경찰행정 등이다(cheongeunchoi@hansung.ac.kr).

김복태(金福泰): 교신저자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FSU)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정책, 인사/조직, 정책평가, NGO, 다문화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Assessing the substitute employee system of Korean public institutions: public officials’ policy reception perspective,” “정부의 양성평등 책임성 강화”,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근로자의 역할모호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인적자원개발의 매개효과 분석” 등이 있다(gys8826@kwidimail.re.kr).

The Inheritance of Wealth in Female Married Immigrant Families

Cheon Geun Choi & Bok-Tae Kim

If parents are rich, their children are rich, and if parents are poor, their children are poor. Although various studies on the inheritance of wealth are being conducted, studies on groups classified as socially underprivileged such as multicultural families are still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income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households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affect the education and income level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ies' children. This study is based on the human capital theory and income transfer theory, which are the main theories on the inheritance of wealth, and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factors that are insignificant to the income and education of adult adolescents in female marriage immigrant households are determined by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s saw. This study utilized the 2018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analysis unit was 598 young adults (20 to 24 years old) as children of married migrant female househol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parent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household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education and income of their children, and the income of the parents of female married immigrant household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income of their children. This implies that various policy supports are needed in order for the children of marriage immigrant families to be utilized as important human resources in our society in the futu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proves whether the poverty status of female married immigrant families is passed down to their children or not.

[Key words: Female marriage immigrants, wealth inheritance, human capital theory, income transfer theory,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